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소식지

제 2호  
일립간호

BIBLE NURSING NEWS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14길 32



<http://www.bible.ac.kr/>



02-950-5401

## 간호학과 교육목적

간호학 교육과정은 한 알의 밀과 같은 복음 전도자 양성이라는 본교 교육 목적 아래 인간의 건강을 유지·증진 및 회복하기 위하여 기독교적 인성과 영성을 기반으로 간호과학 및 인접 학문에 근거한 창의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간호학과 교육목표

1.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2. 다양한 교양지식, 전공지식과 간호술을 통합하여 전인간호를 실천한다.
3. 대상자의 건강목표 달성을 위해 대상자 및 타 전문분야 간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4. 대상자의 건강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분야와 협력한다.
5. 간호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 시 다양한 사고기술을 적용한다.
6. 전문직 간호직업관을 확립한다.
7. 건강관리체계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8. 근거기반 간호실무 수행을 위해 간호연구를 수행하고 평가한다.
9.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응한다.
10.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 간호학과 프로그램 학습성과

1. 기독교적 사랑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간호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는다.
2. 간호 과학 및 인접학문의 지식과 술기를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3. 대상자의 건강문제 개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4. 대상자의 건강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전문분야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와 협력한다.
5. 간호 과정에 창의적 사고 및 비판적 추론 기술을 사용한다.
6. 간호 전문직 표준, 법적, 윤리적 기준을 간호 상황에 적용한다.
7. 간호 실무 현장에서 적용되는 간호리더십을 발휘한다.
8. 근거 기반 간호 실무를 이해하고 간호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
9.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의 전반적인 동향을 이해한다.
10. 개인, 가족, 지역사회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교육을 시행한다.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증간호교육기관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부터 간호교육프로그램 (학사학위 과정) 인증을 획득한 교육기관입니다  
인증기간: 2015년 6월 11일 - 2020년 6월 10

<http://www.bible.ac.kr/university/nursing.aspx>

문의 : 02-950-5511



## 제 5회 간호학술제

2016년 11월 24일 제 5회 간호 학술제가 로고스홀에서 열렸다. 학술제는 3학년 학우들의 논문발표 4편과 포스터 4편, 2학년 학우들의 보건교육 포스터 전시로 구성되었다. 사회는 박수요 학회장이 맡았고, 강규성 교목실장의 기도와 강우정 총장의 격려사로 막을 열었다. 논문 발표에 앞서 제 22회 병원 간호사 회장을 맡고 있는 박영우 을지의료원 간호국장의 '간호의 미래, 간호 대학생의 미래 준비' 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주혜원(졸) 외 4명의 논문의 발표를 시작으로 장현아(4)의 5명의 논문을 포함한 4편의 논문 발표가 이어졌다. 나머지 4편의 연구는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김조자 교수는 총평에서 '전반적으로 학부생 이상의 능력' 이었다며 수고한 모두를 칭찬했으며 2학년 학우들의 보건교육 포스터에 대해서는 일생 전반에 걸친 건강문제들을 핵심적으로 잘 다루었다고 평했다. 논문 발표에서는 주혜원(졸) 외 4명이 특별 논문상을, 장현아(4)와 5명이 발표한 '건강신념모델과 자기효능감이 간호대학생의 손씻기 태도 및 실천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발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교육 포스터에서는 4팀이 수상하였다. 출품작은 다음과 같다.

### <논문 발표>

#### -구두 발표

- ▶ 건강신념모델과 자기효능감이 간호대학생의 손 씻기 태도 및 실천에 미치는 영향/ 장현아 외 5명/ 지도교수 최은희
- ▶ 간호대학생의 노인과의 접촉 빈도와 질, 노화불안, 노인 공감 능력과 노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김주원 외 5명/ 지도교수 장인순
- ▶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 중요성 인식과 태도가 환자 안전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진아 외 5명/ 지도교수 고미숙
- ▶ 여대생의 체형 인식과 사회적 유동성, 생활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문준성 외 5명/ 지도교수 이소정
- ▶ 일 간호대학생의 영성, 영적 안녕, 영적 간호 역량에 관한 연구/ 주혜원 외 4명/ 지도교수 김조자

#### -포스터 발표

- ▶ 간호대학생의 웰다잉(well-dying) 인식에 따른 임종간호태도/ 강현정 외 4명/ 지도교수 이경숙
- ▶ 간호대학생의 통일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역량 조사/ 손예진 외 4명/ 지도교수 안현미
- ▶ 만화동영상을 이용한 칫솔질 교육이 학령전기 아동의 치아건강지식과 행위에 미치는 영향/ 박수요 외 4명/ 지도교수 유하나
- ▶ 아동학대 예비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인식과 신고인식 및 신고의도에 관한 연구/ 김정인 외 5명/ 지도교수 김정숙



## 제 6 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2017년 5월 2일, 로고스 홀에서 제 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개최되었다. 강우정 총장, 상계 백병원 조용균 원장, 전 대한간호협회장· 현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김조자 초빙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인제대학교 상계 백병원 조용균 원장은 “3학년 학생들이 나이팅게일의 희생정신과 헌신을 이어받는 간호사가 되기를 바란다.” 며 격려사를 보냈다. 또한 1학년 후배들이 직접 연주함으로써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47명의 선서생들은 ‘간호는 직업이 아니라 사명’ 이라는 나이팅게일의 이념을 마음에 담아 선서문을 낭독했다.

## 학부모 간담회

2017년 5월 2일, 일립관 405호에서 학부모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나이팅게일 선서식 후 학교와 학부모 간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3학년 재학생들의 학교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시청하고 간호학과 교수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앉아 많은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주고받았다. 교수들은 “임상실습은 간호학과에서의 첫 사회화 과정이므로 가족의 지지가 필요하다.” 고 말했고, 학부모들은 “학업량이 많고 팀 활동이 많아 딸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안타깝다” 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우정 총장, 김정숙 학과장, 교수진, 재학생, 재학생 학부모 등 총 94명이 참석했다.





## 졸업예정자 총장 초청 간담회

2017년 9월 22일 밀알관 고승태 홀에서는 2018년 졸업 예정인 학우들을 축하하기 위한 총장 초청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총장 초청 간담회는 학우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밀알의 사명을 갖고 복음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와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었다. 강우정 총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즉 복음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음을 사회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란 말로 복음전도자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했다. 4학년 대표 조연정은 강우정 총장님과 교수님들, 모든 부서 직원들과 학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낭송했고, 1학년 학우들의 장기자랑을 끝으로 간담회가 마무리되었다. 졸업생은 100%가 참여하였다.

### 졸업예정자 총장 초청 간담회를 마치고

간호학과 4학년 조연정

먼저 졸업예정자 총장 초청 간담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성서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4학년, 졸업예정자 총장 초청 간담회를 참석하게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총장님의 격려사, 김조자 교수님과 김정숙 학과장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을 듣고 나니 사회에 나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감하였습니다. 이 간담회는 단순히 총장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참석한 모든 간호학과 4학년 학우들이 임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간호사로 일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다짐을 선서할 때는 학교에서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전해지길 더욱 간절히 원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교수님들 몰래 특송도 준비하였습니다. 항상 온 마음을 다하여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감사한 마음을 잘 전하게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앞으로의 남은 학교생활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간호사로서 쓰임받기 위해 매순간 노력하며 보내겠습니다. 졸업하는 4학년들을 위해 특송으로 함께 해준 1학년, 영상을 만들어준 2학년, 여러 준비를 도와준 3학년 학우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영광의 국가고시 100%, 취업률 100%

간호학과 4회 졸업생 44명이 2017년 1월 20일 제 57회 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했다. 김정숙 학과장을 비롯한 교수들과 여러 학우들이 이른 새벽부터 고사장 앞에서 간식을 나눠주고 함께 기도함으로 응원을 했다. 8학기동안 총 140점 이상의 학점이수와 전공 수업을 통해 익힌 지식과 1,000시간이 넘는 임상실습을 통해 숙련된 졸업생들은 전원 합격의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졸업생 전원이 국가고시에 100% 합격하여 기쁨이 두 배가 되었다. 아울러 올해 간호학과 4학년 모두가 모두 취업하여 취업률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졸업생들이 진출한 의료기관은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명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들이다.

## 졸업식

2017학년도 6 2 회 졸업예배 및 전기학위수여식이 2017년 2월 7일 오후 2시 밀알관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간호학과 44명의 학우가 학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졸업생 수상자는 총장상 송우주, 대한간호협회상 김연수, 한국간호과학회상 나예원, 학과장협의회상 박지혜, 대한기독교간호사회상 임지영, 미래국제간호인재상 이여름,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상 김서영 학우가 수상하였다.



## 기숙사 간담회

2017학년도 2학기 간호학과 기숙사 간담회가 총 2회(3월 16일, 9월 25일) 일립관 101호에서 열렸다. 이 날 간담회는 김정숙 학과장과 안현미 교수 및 간호학과 기숙사생 44명이 참석하여 학우들의 기숙사 생활에 대한 질문과 앞으로의 기숙사 생활 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였다. 또한 간호학과 기숙사 대표 장은희 학우는 “기숙사 생활 중 궁금하거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각 학년 기숙사 대표에게 편하게 말했으면 좋겠다.” 라며 간호학과 기숙사생들 간 도움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 선진병원 탐방: 서울 아산병원

2017년 2월 22일 간호학과 2학년 26명을 대상으로 아산병원 탐방이 이루어졌다. 아산병원 동관 6층 2세미나실에서 간호본부 소개 강의를 들은 후 안전관리 교육으로 질 향상과 환자안전, 감염관리, 소방교육, 정보보호, 환자권리, 책무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그 후 암 병동과 어린이 병동을 둘러보고 탐방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기본간호 핵심 술기 인증평가

2017년 2월 21일 간호학과 2학년 47명을 대상으로 '2016 기본간호 핵심 술기 인증평가'가 이루어졌다. 본 평가의 목적은 간호 현장에 필요한 지식과 중재 전략의 습득 정도를 평가하고, 임상실습을 나가기 위한 준비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학생들은 총 4가지 항목(활력징후, 기관 내 흡인, 피하주사, 위관영양)의 술기를 원내 전임교수 8명과 외부평가자 4명 앞에서 수행했다.

김예나 학우는 "술기의 프로토콜과 이론적 근거를 익히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술기시험을 통해 대상자에게 어떤 부분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예비간호사로서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준비해야 좋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소감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외부 평가자들은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높은 비전과 가치를 잠시나마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라고 말했다.

## 신입생 학부모 간담회



2017학년도 '신입생 학부모 초청 간담회'가 2월 25일에 진행되었다. 로고스홀에서 예배와 학교소개를 시작으로 하여, 학과별 간담회로 이어졌다. 김정숙 학과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교수 및 학과소개를 비롯하여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와 질문이 오갔다. 간호학과 김정숙 학과장은 본 학교의 교육이 단순히 취업만을 목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시킬 것을 강조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한 학부모는 "입사한 한국성서대 간호학과 출신은 한명도 퇴사를 하지 않았다." 라고 언급하며,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이후 강우정 총장의 인사말이 이어졌고,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들의 여러 의견을 들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방안 개선에 반영하는 기회로 삼았다.



## 김조자 교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 영예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제 46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자로 간호학과 김조자 교수를 선정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은 전 세계 간호사의 최고 명예이며, 기장 수여식은 10월 27일 대한적십자사 창립기념식장에서 이뤄졌다. 대한적십자사는 김조자 교수가 지난 38년간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간호사 교육수준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형 전문 간호사 체계를 마련하고 학부 및 전문 간호사 교육과정의 표준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공적을 높이 샀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수여하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은 크리미아 전쟁 당시 부상병 간호를 위해 헌신한 나이팅게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12년 제정되었다. 그 이후로 매 2년마다 전 세계에서 50명 가량을 시상하고 있다. 기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번까지 모두 57명이 수상했다.

##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2015년 2월 입사하여 3년째 근무 중인 이마리아입니다.

저는 혈액종양내과 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병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병동의 특성상 항암치료 주기에 맞추어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라포가 잘 형성된 환자들이 상태가 나빠지고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에는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입원할 때마다 저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감사함을 표현하시는 보호자들과 환자들이 많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서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복음전도자로서 훈련받은 것을 기억하며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신규간호사가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처럼 대처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학교에서 훈련받은 신앙교육과 전공지식에 대한 기본을 바탕으로 정직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 혼이 날 수도 있지만 환자나 선배 간호사를 진심으로 대한다면 결국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엇보다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불평,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는, 특히 다른 사람의 험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매일 드리던 정해진 채플시간이 이제는 없지만, 예수님이 한 일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을 기억하며 저 역시 임상에서 만나는 환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병원 내 간호부 워크숍에서 조를 나누어 토의하고 발표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때 한국성서대 후배와 같은 조로 만나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후배들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부에서 훈련받은 후배들이라면 임상에서 누구보다 훌륭한 간호사가 되리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 " 임상실습 후기 "



## 3학년 정소영

### Q. 임상실습 중 보람찼던 일화가 있다면?

가장 보람찼던 일은 ICU(중환자실) 실습을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ICU 실습을 나갔을 때 느꼈던 것 중 하나는 간호사의 업무가 너무도 많고 바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학생간호사로서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할 때 선생님께 여쭙본 뒤 체위 변경이나 마사지 등을 실시하여 그분들의 안위 증진에 힘썼습니다. 그 중 한 환자가 제 손을 잡고 명찰에 적힌 제 이름을 되뇌이며 감사하다고 거듭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일을 통해 자그마한 일도 환자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로 더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 Q.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다면?

병동 실습 중 간호 업무를 정말 즐겁게 하는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일을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자를 위하여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병동의 환자들을 돌아볼 때 환자들이 해야 하는 처치나 궁금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교육자, 지지자 등과 같은 간호사의 역할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미건조하게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 환자에게 알려주고 가끔은 설득도 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감명 깊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제가 나중에 어떠한 간호사가 되어야할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Q. 실습 중에 힘들었던 점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나요?

사실 실습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당히 긴장하게 돼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힘을 많이 얻었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실습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마음이 많이 힘들 때면 혼자 코인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몇 곡 부르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습니다.

### Q. 후배들에게 실습 팁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습 나갔을 때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야 선생님들도 많이 가르쳐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해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선생님은 잘 알려주시고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십니다. 적극적으로 실습에 임하고 실습 나가는 병동에 맞춰 미리 공부를 하면 더 많은 것이 보이고 재밌습니다. 또한 모르는 것이 나오면 바로바로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 2학년 최송희

2학년 2학기가 되어 그 동안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임상실습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닌, 다른 일반 대상자의 건강을 사정한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습을 하며 가장 처음 느꼈던 것은, 대상자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핵심적인 질문만 건네며 건강을 사정하는 것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각각 다른 연령의 대상자들마다 달성해야 하는 발달과제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고, 최대한 건강사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율 실습과 기관 실습을 되풀이하며, 점차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건강을 사정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각의 대상자에 따라 어떠한 말투와 단어를 사용하여 질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임상실습은 3학년이 되어 실제 임상에서 실습을 하기 전 그동안 쌓아 온 많은 사전 지식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단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인터뷰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16학번 김하늘입니다. 이번 여름에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라는 국가로 해외봉사를 다녀왔습니다.

Q. 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유니세프(UNICEF) 같은 국제기구 직원들이 최악의 조건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TV에서 볼 때마다 참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은 곧 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고, 마음 속에 담아둔 채로 살다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진행되는 '월드프렌즈 코리아'라는 대학생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라면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제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봉사를 다녀온 후 느낀 점 말씀해주세요.

간호학과라는 전공을 살려 팀 내에서 메딕(의료담당)으로 활동했습니다. 메딕이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은 부상부터 예상치 못했던 큰 부상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때마다 구급함을 들고 뛰어다니며 그 동안 배운 전공지식을 최대한 살려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처치 후에도 어떻게 상처를 관리해야 하는지, 왜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팀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을때 정확한 대답을 해주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학생 간호사로서의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었는데, 메딕 활동으로 인해 부족한 나에게도 기대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손 씻기처럼 사소한 행동이라도 여러 사람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 〈Faith Training〉

### 간호학과 1학년 김서이

F T는 한국성서대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학교전체사람들과 하는 공동체 생활이라 걱정들로 가득했었다. 처음엔 아직은 어색한 동기들과 같이 자고 일찍 기상해야해서 몸도 마음도 조금은 힘들었었다. 하지만 2박3일간의 집회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동기들과 학우들과 가까워져서 재미있었고 즐거운 시간들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F T를 통해 내가 했던 걱정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고 나를 한국성서대에 보내주심을 감사하게 된 좋은 시간이었다.

### 간호학과 1학년 황혜선

종교적인 것을 정말 많이 한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조금 지루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근데 전도반끼리 돌아다니니까 확실히 많이 친해져서 이후에 전도 훈련 할 때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예배가 조금 길긴 했지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즐거웠다. 학기초라 많이 낯설고 힘들 거라고 생각 했지만 학우들과 함께 여러가지 활동을 하면서 신앙심과 우정을 키울 수 있어서 좋았다.

## 〈밀알훈련〉

### 간호학과 1학년 오서영

아직 동기들의 얼굴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함께 2박3일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럽게만 느껴졌지만 막상 활동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되어 기뻐다. 나의 필요와 염려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 간호학과 1학년 채찬영

처음엔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걱정도 많이 하고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는데 막상 가서는 하는 활동을 하나하나 느끼는 바가 많았다. 제일 의미 있던 것은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다. 살면서 감사하는 법을 잘 몰랐던 내가 굉장히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있음에 놀랐다. 심지어 날씨가 좋지 않았던 탓에 활동을 더 하지 못한 것이 아쉽게 느껴지기까지했다.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는 과정 속에 자원 봉사자들의 희생과 봉사를 보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다.

## 〈부흥사경회〉

### 간호학과 1학년 양한아

처음엔 채플 시간이 길어져서 부담스러웠지만 첫날 예배를 드리고 생각이 바뀌었다. 열정적으로 설교해주시는 초청 목사님의 모습에 덩달아 힘을 얻고 은혜받을 수 있었다. 학교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세상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서인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간호학과 1학년 김정연

‘채플을 30분 더라니, 배고픈데’ 라는 생각만 가지고 참여했던 부흥사경회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웠다. 평상시보다 더 나를 위해,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초청 목사님의 열정에 나도, 부흥사경회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동아리 소개

### [당현사랑]

당현사랑 동아리는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의 의료봉사동아리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첫째, 매주 수요일 서울 북부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어르신 분들의 건강 체크 및 보건교육

둘째, 매주 금요일 한국성서대학교 학우들의 혈압, 혈당, 인바디 측정 및 보건교육

셋째, 당현천에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혈압, 혈당 측정 및 보건교육

넷째, 동아리 회원 간의 친목도모

### [백서탐방]

백서탐방은 담당교수님들과 학생들을 포함하여 총 29명으로 구성이 되어, 4년 동안 대학생 권장도서 100권을 읽고 토론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책을 읽으면서 지적인 능력을 함양할 수 있고, 타인의 생각을 수용하고 비판하는 훈련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로써 동아리 원들은 백서탐방을 통해 간호사의 필요한 자질들을 갖추어, 미래의 훌륭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아가페]

오늘의 캠퍼스 복음화는 내일의 민족 복음화!  
오늘의 의료계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복음화!  
안녕하십니까! 의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저희는 성서대학교 아가페입니다.

### [편집부]

편집부는 간호학과의 소식을 전하며 공유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 최종적으로는 간호학과만의 신문을 만들어낸다. 학과 내 행사 시 자체적으로 사진을 찍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주 활동으로 하고 있다.

### [코이나]

국제 간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에 관심을 가지며 국내뿐아니라,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간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외적 보건분야에 관한 다양한 탐구와 활동을 하는 동아리이다.



## 교수동정

### 김정숙 교수

한국중환자간호학회지 논문심사위원  
간호행정학회지 논문심사위원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강사

### 김조자 교수

본교 간호학부 특별초빙교수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  
제 46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 수여(2017)

### 장인순 교수

한국산업간호협회 이사, 홍보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이사, 홍보이사  
한국학교보건학회 총무이사  
한국간호과학회 JKAN 심사위원  
지역사회간호학회지(KCI 등재지),  
한국학교보건학회지(KCI 등재지),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KCI 등재지) 등  
논문심사위원

### 최은희 교수

대한간호협회 홍보위원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실시기관관리  
분과위원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과정 심사위원  
노인전문간호사 교육과정협의회 총무이사  
한국중환자간호학회 총무이사  
대한간호학회지(SCIE, SSCI 등재지)  
논문심사위원  
임상간호연구(KCI 등재지) 논문심사위원  
재활간호학회지(KCI 등재 후보지)  
논문심사위원  
중환자간호학회지(KCI 등재 후보지)  
논문심사위원  
병원간호사회 보수교육 강사  
BLS Instructor(대한심폐소생협회)

### 유하나 교수

BLS instructor(대한심폐소생협회)  
응급 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

### 안현미 교수

국제한인간호재단 홍보이사  
국제보건의료학회 교육위원회

### 고미숙 교수

BLS Instructor(대한심폐소생협회)  
중환자 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

### 이소정 교수

AHA Healthcare Provider 자격 취득

### 김경숙 교수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편집위원  
한국병원경영학회 편집이사  
대한병원협회 환자안전 교육강사

## 간호학과 주요연혁

- 2017. 11. 제6회 간호학술제
- 2017. 5. 제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 2017. 3. 간호학과 8회 입학생 59명 입학
- 2017. 2. 제4회 졸업생 44명 배출(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
- 2016. 11. 제5회 간호학술제
- 2016. 5. 제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 2016. 3. 간호학과 7회 입학생 55명 입학
- 2016. 2. 학과장 김정숙 교수 취임
- 2016. 2. 제3회 졸업생 43명 배출(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
- 2015. 11. 제4회 간호학술제
- 2015. 5. 간호학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증간호교육기관 획득
- 2015. 5. 제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 2015. 3. 간호학부 6회 입학생 51명 입학
- 2015. 2. 제2회 졸업생 37명 배출(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
- 2014. 11. 제3회 간호학술제
- 2014. 4. 제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 2014. 3. 간호학부 5회 입학생 52명 입학
- 2014. 3. 학부장 최은희 교수 취임
- 2014. 2. 제1회 졸업생 20명 배출(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
- 2013. 11. 제2회 간호학술제
- 2013. 4. 제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 2013. 3. 간호학부 4회 입학생 57명 입학
- 2012. 11. 제1회 간호학술제
- 2012. 4. 제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 2012. 3. 간호학부 3회 입학생 48명 입학
- 2011. 8. 한국간호과학회-한국성서대학 공동학술대회 개최  
주제: '생행동 연구와 다학제적 접근'
- 2011. 3. 간호학부 2회 입학생 47명 입학
- 2011. 9. 2011년도 간호학부 신입생 20명 증원 승인(정원 45명)
- 2011. 3. 초대 학부장 장인순 교수 취임, 김조자 특별초빙교수 초빙
- 2010. 3. 간호학부 1회 입학생 25명 입학
- 2009. 11. 간호학부 신설(입학정원 25명)



##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개설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가 2018년 1학기에 새로 개원된다. 간호학과 대학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실무, 교육, 연구 등의 분야에서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며 건강전달체계를 발전시키고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간호전문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세부 전공으로는 간호관리학,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여성건강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총 6과목이 개설되며, 대학원생 총 정원은 10명이다. 대학원 강의는 매주 금요일에 있을 예정이다.

본 대학원의 교육목표 및 교육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교육 목표

복음주의적 밀알정신을 바탕으로 인류건강 증진을 실천하는 간호지도자를 양성한다.

### 교육 목적

기독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간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간호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있다.

첫째, 전문화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체계를 형성한다.

둘째, 이론과 실물의 발전을 위해 연구를 수행한다.

셋째, 간호전문인으로서 리더십 전략을 개발하고 발휘한다.

##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발전기금 1만 달러 전달

지난 9월 22일 강진 사모(강우정 총장 사모)가 이번에 새로 설립된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발전기금으로 미화 1만 달러(한화 1,140여 만원)를 후원하였다. 후원금은 2017년 9월 22일 저녁 총장초청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간담회에서 강진 사모가 김정숙 학과장에게 전달하였다.

## 학교 발전기금 전달한 김조자 교수

간호학과 김조자 교수가 2017년 10월 23일 학교발전을 위해 1천만 원을 후원하였다. 김조자 교수는 대학이 대외적 상황 등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학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사무실:02-950-5511

02-950-5521

Fax:070-4275-0163

